

# 류현진 완벽투 ‘부상의 기억’ 지웠다



## 다저스, SF에 6-5 승... 류, 에이스 범가너 넘고 개막 후 2연승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2013년 미국프로야구 진출 후 통산 99번째 등판에서 시즌 2승째를 수확했다.

류현진은 3일 열린 2019 메이저리그 정규리그 샌프란시스코(SF)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7이닝 동안 삼진 5개를 곁들이며 2점만 줬다.

다저스의 6-5, 짜릿한 1점 차 승리로 끝나면서 류현진은 정규리그 개막전에 이어 2경기 연속 월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내 투구)로 승리를 따냈다.

류현진은 5회까지 공을 48개만 던지는 등 총 87개의 공으로 경제적인 투구를 보였다.

‘홈런 치는 투수’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의 좌완 선발 매디슨 범가너에게 2점 홈런을 허용한 것을 합쳐 안타 6개를 맞았다.

개막전에서 13타자를 연속 범타로 돌려세워 6이닝 1실점 승리의 발판을 놓은 류현진은 이날도 2회 5번 타자부터 6회 7번 타자까지 12타자를 연속으로 범타로 막아 승리의 토대를 마련했다.

두 번이나 병살타를 엮는 등 땅볼로만 아웃카운트 10개를 채웠다.

속구(38개) 최고구속은 시속 148km에 그쳤지만, 체인지업(24개), 커브(14개), 컷 패스트볼(10개), 슬라이더(1개) 등 다양한 변화구의 위력이 돋보였다.

까다로운 타자 브랜던 벨트와 에번 롱고리아를

### 제구력

체인지업·커브 등 변화구 ‘위력’  
5회까지 48개...이닝당 10개 이하

### 2 연속 QS

7이닝 무사사구 삼진 5개  
6피안타 중 투런 허용 ‘옥의 티’

### 위기관리

3.1이닝 땅볼로만 아웃카운트  
실점 위기마다 병살타 유도  
피칭 후 빠른 수비전환 호평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워 1회를 깔끔하게 막은 류현진은 2회엔 공 7개로 이닝을 끝냈다. 선두 버스터 포지에게 중전 안타를 맞았지만, 1사 후 안헤르 비스 솔라르테를 2루수 병살타로 요리했다.

3회까지 투구 수 30개로 막은 류현진은 4회엔 2루수 엔리케 에르난데스가 벨트의 깊숙한 안타성 타구를 견어내자 1루로 전력 질주해 송구를 정확하게 받아 아웃을 잡고 박수를 받았다.

5이닝까지 던진 공은 48개로, 이닝당 10개도 안 됐다.

그러나 6회 범가너에게 홈런을 맞고 주춤했다. 범가너는 1사 1루에서 류현진의 높은 컷 패스트볼을 잡아당겨 왼쪽 담을 넘어가는 투런포를 쳤다. 개인 통산 18번째 홈런으로, 류현진의 무실점 행진을 깨는 대포였다.

류현진은 개막전에서도 6회 애덤 존스에게 홈런을 내준 데 이어 두 경기 연속 홈런을 허용했다.

류현진은 스티븐 두저와 벨트에게 연속 안타를 맞아 자초한 1사 1·2루 추가 실점 고비에서 특유의 위기관리 능력을 뽐냈다.

롱고리아를 공 3개로 헛스윙 삼진을 잡고, 포지예전 체인지업을 던져 3루수 땅볼을 유도해 이닝을 끝냈다.

류현진은 7회 선두 타자 브랜던 크로퍼드에게 우전 안타를 내줬으나 솔라르테를 유격수 병살타로 엮은 뒤 후속 타자를 내야 땅볼로 처리하고 임무를 마쳤다.

/연합뉴스

## 류현진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전 투구내용 통산 99번째 등판, 시즌 2승 3일 (한국시간)

7이닝 6피안타 2실점 1피홈런 0볼넷 5탈삼진 87개 투구 평균자책점 2.08 다저스 6-5 승

|        | 1회     | 2회 | 3회     | 4회     | 5회 | 6회 | 7회 |
|--------|--------|----|--------|--------|----|----|----|
| 샌프란시스코 | 0      | 0  | 0      | 0      | 0  | 2  | 0  |
| LA 다저스 | 0      | 0  | 5      | 0      | 0  | 0  | 1  |
| 타순 1번  | 좌익수뜰공  |    | 삼진(4K) | 좌전안타   |    |    |    |
| 2번     | 삼진(1K) |    | 2루수땅볼  | 우전안타   |    |    |    |
| 3번     | 삼진(2K) |    | 유격수땅볼  | 삼진(5K) |    |    |    |
| 4번     | 중전안타   |    | 1루수땅볼  | 3루수땅볼  |    |    |    |
| 5번     | 좌익수뜰공  |    | 1루수땅볼  | 우전안타   |    |    |    |
| 6번     | 2루수병살타 |    | 2루수직선타 | 유격수병살타 |    |    |    |
| 7번     | 2루수뜰공  |    | 투수땅볼   | 유격수땅볼  |    |    |    |
| 8번     | 2루수땅볼  |    | 좌전안타   |        |    |    |    |
| 9번     | 삼진(3K) |    | 좌월홈런   |        |    |    |    |

연습뉴스



윌랜드

예상과 다른 마운드 그래서 더 희망적이다. KIA 타이거즈는 2019시즌을 준비하면서 마운드 구상에 진통을 겪었다.

캠프 시작과 함께 김세현과 윤석민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조기 귀국을 했고, 두 번째 선발 시즌을 준비했던 한승혁도 캠프 막바지 내전군 부상으로 캠프 완주를 하지 못했다.

올 시즌 KIA 마운드의 ‘전천후 카드’로 기대를

## KIA 마운드 우려는 기우였네

윌랜드, 실전경험 부족 불안 씻고 쾌투...팀 유일 선발 2연승  
하준영, 강심장 탑재 위기마다 실점 막아...볼펜 핵심 ‘우뚝’

모았던 사이드암 박준표는 위 용종 제거 수술을 하느라 아예 캠프에 참여하지 못했다.

지난 시즌 좌완 필승조로 활약을 했던 임기준 역시 어깨 통증으로 캠프 출발이 늦어지면서 오кина와가 아닌 대만에서 뒤늦게 시즌을 준비했다. 임기준에 앞서 KIA의 유일하다시피 했던 좌완 볼펜 심동섭도 지난 시즌을 끝으로 군복무를 시작하면서 전력에서 사라졌다.

‘최고참’ 임창용과 결별을 하면서 새 판을 짜게 된 마운드에 부상까지 겹치면서 KIA 마운드에는 자의 반 타의 반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시즌 초반 마운드 변화의 움직임은 긍정적이다. 우리의 시선을 끌었던 조 윌랜드와 하준영의 거침 없는 질주가 가장 반갑다.

윌랜드는 팔꿈치 부상 이력과 출산 휴가에 따른 실전 부족으로 변수 많은 선발로 꼽혔다.

하지만 “몸상태가 좋다”며 자신감을 보인 윌랜드는 한화 이글스스를 상대로 한 KBO리그 데뷔전에서 6이닝 7피안타(1피홈런) 4볼넷 3탈삼진 3실점(2자책점)을 기록하며 KIA의 시즌 첫 선발승 주

인공이 됐다.

그리고 지난 2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원정경기에서는 더 좋은 성적표를 내면서 연승에 성공했다.

6.1이닝을 소화해준 윌랜드는 5피안타 2볼넷 7탈삼진 1실점의 호투로 4-1 경기의 승리투수가 됐다. 스트라이크존을 잘 활용한 공격적인 피칭으로 시원시원하게 이닝을 넘기면서 선발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해주고 있다.

하준영을 보는 시선에는 ‘경합’이라는 변수가 있었다.

마무리캠프를 시작으로 스프링캠프, 시범경기를 거쳐 놀라운 성장세는 보였지만 ‘진짜 무대’까지 지켜보아야 한다는 게 하준영에 대한 평가였다.

하지만 고졸 2년 차 하준영은 ‘강심장’을 과시하면서 바로 KIA 볼펜의 핵심이 됐다.

결과는 좋지 못했지만 손 악이 됐던 지난 시즌 1군 경험과 겨우내 착실하게 새 시즌을 준비하며 스피드를 끌어올린 게 하준영의 자신감이 됐다.

‘기대주’였던 하준영은 위기 순간 가장 믿고 찾는 ‘필승조’가 됐다.



하준영

캠프 전 생각했던 최고의 전력으로 마운드 엔트리 가 꾸려지지 않았지만 빈틈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 부상 선수의 복귀 시점에 목을 매던 예전과는 전혀 다른 흐름이다.

돌아올 전력들도 또 다른 경쟁을 뚫어야 하는 ‘예상과 다른 마운드’. 경쟁이 만든 ‘젊은 마운드’의 힘이 눈에 띄는 KIA의 시즌 초반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추신수 ‘장타쇼’

시즌 첫 멀티히트...텍사스 승리

추신수(텍사스 레인저스)가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에이스 저스틴 벨렌다를 상대로 장타 쇼를 펼쳤다.

추신수는 3일 열린 2019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홈 경기에 1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 5타수 2안타 1삼진 1득점으로 활약했다.

추신수의 시즌 첫 멀티히트 경기다. 특히 안타 2개는 모두 장타였다.

전날 4타수 무안타로 0.100까지 떨어졌던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00(15타수 3안타)으로 상승했다.

올 시즌 들어 상대가 좌완 선발을 내세우면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아 했던 추신수는 메이저리그 정상급 우완 에이스를 두들기며 무력시위를 했다.

톱타자 추신수의 활약을 발판으로 텍사스는 휴스턴에 6-4로 승리했다.

오승환은 시즌 두 번째 등판에서 만루 위기를 탈출하며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오승환은 탭파베이 레이스전에서 0-4로 뒤진 7회 말 등판, 1이닝 2피안타 1볼넷 무실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